**세계종교인평화회의**

**(*Religions for Peace*)**

**비엔나 선언문**

**다른 사람 환영하기 (Welcoming the Other) – 다 종교 간 평화구상**

**제9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

**2013년 11월 2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600명 이상의 종교 지도자, 세계의 모든 종교와 역사적인 종교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모여 제9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를 개최하였다.[[1]](#footnote-1) 90개에 달하는 국가적 규모의 다종교간 협의회나 단체로 구성된 세계종교인평화회의는 다섯 개의 지역 협의회, 하나의 세계 협의회, 그리고 여성 과 청년 종교인을 포함하는 세계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종교가 함께 노력 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에서 우리는 평화에 대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와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다종교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계종교인평화회의는 다종교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금번 총회의 핵심 과제인 “다른 사람 환영하기(Welcoming the Other)”를 다 종교 간 평화구상으로 삼아 재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종교 전통들이 공유하고 있는 평화의 긍정적 요소를 재확인한다.

* 평화는 각 종교의 중심이다. 우리가 지닌 다양한 믿음은 모두 함께 평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 사랑, 자비, 정직은 증오, 무관심, 기만보다 강력하다.
* 모든 사람은 인간존엄성을 지니고, 인간성을 공유하므로 서로를 보살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당면한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여겨야 한다.
* 우리는 가장 약하고 상처받은 자의 편에 서서 도우며,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협력자이다.
* 어린이는 최우선 고려대상이다. 특정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며 사회 자원을 우선적으로 이들을 위해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 평화구축의 핵심 요소는 대화와 화해를 통해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무차별적인 파괴는 비도덕적이다.
* 인간 개발을 증진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평화의 긍정적 요소는 평화를 저해하는 공통 위협과 맞서 투쟁하려는 우리의 소명의식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위협요소는 다음과 같다.

* 폭력적인 극단주의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오용하는 것.
* 삶을 지탱하는 가치를 무너뜨리며 지속되고 있는 영적 위기.
* 폭력을 수반한 갈등과 군비 증강.
*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를 비롯한 불평등증가와 극단화.
* 여성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 가족에 대한 지원 약화.
* 극심한 빈곤, 예방 가능한 질병 방치, 기회 부족.
* 사회질서와 인류번영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 천연 자원 고갈, 기후변화.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에서 가르치는 공동평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자신, 그리고 우리 종교공동체는 공동치유, 공동생활, 공동안보에 근간한 공동 참살이(shared well-being)를 증진하는 평화의 문화 확립에 쉬지 않고 헌신할 것이다.

**적대감의 증가**

제9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에서 우리는 평화에 대한 새로운 위협 요소인 ‘적대감 증가’라는 문제에 주목하였다.

종교 내, 종교 간, 그리고 사회에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적대감 증가 현상에 대해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불 관용의 연장이자, 잦은 폭력의 주요인이다. 적대감의 피해자는 인구 구성원 가운데에서 취약 계층으로, 이민자, 난민, 망명신청자, 유민, 무국적자와 같은 소수민족, 소수종교인, 소수언어사용자들이다.

적대감은 정부, 개인, 조직, 사회 집단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종교나 믿음의 자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종교적 믿음과 의식을 제한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때때로 일부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열등한 지위를 갖기도 한다. 종파간, 공동체간 분쟁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며, 무고한 생명을 해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편협한 사고로 인해 가열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은 인간의 존엄성, 올바른 통치, 공동 참살이를 위협한다.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폭력은 평화에 대한 장애물로, 평화를 저해할 여러 위협 요소를 심각하게 악화시킨다. 종교공동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현재 가장 당면한 위협이자 동시에 평화 위해 요소 해결의 열쇠로 여기면서 이에 맞서야 한다.

**“다른 사람 환영하기” – 다종교 평화구상**

우리의 다종교 평화구상은 모든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을 환영”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속한 다양한 신앙전통은 “다른 사람”과 깊고도 활발한 연대감을 맺고 감정을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은 일치라는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종교공동체가 내면 깊이 함께 나누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환영하기”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관용은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게 만드는 원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용의 정신이 확산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다른 사람을 환영한다”는 것은 여러 종교가 정신적, 도덕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존엄성, 취약성, 참살이를 위해 연대의 정신으로 굳건히 함께 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용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각기 다른 종교전통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정의 추구, 다른 사람의 참살이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 악의 없는 고통에 대한 인내, 악의를 선의로 보답하기, 용서하고 또 용서를 더 확대하는 것, 무한한 연민과 사랑에 대한 표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환영”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인간의 전체적인 발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온전히 고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총회 선언문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공동의 행복을 함께 만들고 보살피고 가꾸어나가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 환영하기”라는 것을 확인한다. 공동의 행복이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지구를 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실로 엄중한 종교의 의무다.

함께 일하는 종교공동체는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확산되는 것을 막으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를 재건하도록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자원을 무기증강에 사용하는 것보다 빈곤을 완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교육과 의료 개선 및 환경문제 대처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사람 환영하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스스로를 보라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비폭력, 분쟁 예방법, 평화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평화의 긍정적 구상은 인간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기반이다.

우리는 종교와 믿음에 대한 자유를 포함하여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는 시민권의 개념을 좀 더 확고하게 고취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환영할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면서 인간개발 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때에야 비로소 종교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환영할 수 있다. “다른 사람 환영하기”는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자연재해를 악화시키는 지구 파괴 행위를 거부한다. 공기, 토양, 물을 보존하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과 공동 참살이 유지에 필수적이다. 개발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존하는 가운데 삶의 지속성을 존중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들의 종교 공동체는 각기 “다른 사람 환영하기”를 가르치는 종교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젊은 세대와 함께 우리의 개별 종교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종교 안에 있음을 재발견해야만 한다.

종교 공동체는 다종교간 평화구상을 발전시키고 다종교간 협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점증하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종교지도자와 신앙인

*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 여성과 여아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서 남녀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공조할 것.
* 취약계층 및 박해 받는 모든 사람, 그리고 믿음의 차이로 인해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것.
* 직계 가족 및 대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인식할 것.
* 기후 변화 원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논할 것.
*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서 청년 주도, 그리고 풀 뿌리 기반의 가치를 인정할 것.
* 공동 참살이를 위한 영적 가치를 제고할 것.
*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환영할 것.
* 다른 사람 환영하기를 위한 협력관계에 참여할 것.
* 구체적인 종교간 협력 활동을 통해 인간존엄성, 공동 참살이, 시민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람 환영하기”를 위한 다종교간 관계망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

1. 정부, 국제 기구, 시민사회

* 모든 사람이 삶을 포괄적으로 행복하게 발전시키고 보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뒷받침하는 바른 통치를 할 것.
* 불 관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
*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 유민, 무국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 정책과 법률 기준을 마련할 것.
* 다수이든 소수이든 간에 관계없이 개인과 집단의 종교나 믿음의 자유, 그리고 여타 다른 권리 보장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시민권을 증대할 것.
* 예배 장소 보호를 보장할 것.
*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을 것.
* 폭력 충돌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를 증진할 것.
*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핵 피폭과 핵 오염의 위협을 논의할 것.
* 신앙인, 종교지도자, 종교공동체, 종교네트워크가 다른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할 것.

1. 좋은 일을 행하려는 모든 사람

* 국가, 비국가적 활동세력, 시민 사회, 종교 단체와 지도자들 그리고 개인이 행하는 모든 형태의 불 관용과 차별을 없애고 이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킬 것.
* 다른 사람 환영하기.

우리 인류의 진정한 번영 증진을 위하여 제9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에 참가한 대표단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평화를 저해하는 위협요소라고 보고 이에 합심하여 저항하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긍정적인 행보를 취하는 데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이 두 가지 약속과 함께 제시한 행동강령은 우리가 지닌 다종교 평화구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2013년 11월 22일

1. 세계종교인평화회의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다종교간 기구로, 바하이교, 불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토착신앙, 자이나교, 유대교, 이슬람, 시크교, 신도, 도교, 조로아스터교 지도자들이 속해 있다. [↑](#footnote-ref-1)